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중기부,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경영, 폐업·재도전까지 든든하게 지원
- 청년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27년 사회안전망 정책방향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9월 2일(수) KT&G 상상플래닛(서울 성동구)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27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개최지는 「소상공인365*」 상권분석 결과, 신규 창업과 젊은 층의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권, 성수동(MZ상권, 역주행상권)이다.

* 소상공인365(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 상권 분석,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AI 상권·정책 서비스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

<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9. 2(수), 10:00~11:30
- 장소 : KT&G 상상플래닛 8층(서울 성동구 독성로 13길 38)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청년 소상공인, 유관기관 담당자 등 30여 명
- 주요내용 : 청년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창업·경영 애로 사례를 청취하고, 정부의 '27년 사회 안전망 정책 방향 소개

간담회에는 창업과 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 육아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사례 발표에 나선 예비 창업자인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동기와 창업 도전 사례를 발표하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촘촘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기부는 그간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27년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책은 크게 ① 청년의 창업과 지속적인 도전을 뒷받침하는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② 건강·돌봄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③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 등 3대 축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향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①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 ② 삶의 안전망(건강·돌봄지원사업 신설 등), ③ 사회보험 안전망(실업급여 지원 확대 및 산재보험 지원 신설)

발표 이후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은 창업부터 경영유지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했다. 또한 창업을 준비·시작하는 단계에 대한 지원 정책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실제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유로 폐업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동안 현장에서 들려주신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도 버틸 힘을 보태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경영안전지원과	책임자	과 장	전세희	(044-204-7670)
		담당자	사무관	최정우	(044-204-7294)

※ 사업별 세부내용은 정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①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

- 창업 5년 미만 청년 4.8만명에게 폐업·재도전안전망을 폭넓게 지원하고, 경영유지 시 성장을 지원

* 연간 보험료 중 창업 연차에 따라 보험료를 60~80% 지원

구 분	지원내용(안)	지원금액(안)
휴업 * 결혼, 출산, 재난, 질병 등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최대 3개월간, 일 10만 원
폐업 * 매출 감소, 질병, 재난 등	재창업 비용, 사무실 임차료, 근로자 임금 등	최대 2천만원 일시지급
창업 성공 * 경영유지 특약	①업력 3·5·7년 도달시 격려금 ②만기 도달시 적립금 지급	①사업화 격려금 1천만 원 ②적립금(목돈) 복리 지급

② 삶의 안전망 : 건강검진 및 육아 지원 도입

- (건강) 소상공인의 건강위험과 소득위험이 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건강검진에 따른 휴업·대체인건비 지원

* 정부안 : 건강검진 대상 200만명에게 건강검진 휴업 또는 대체인건비 10만원 지원

- (육아) 자영업자(특히, 1인 여성)에 육아지원 수당 도입을 추진하여, 육아·출산에 따른 소득단절과 폐업을 방지(고용부 협업)

* 정부안 : 1인 자영업자 대상 3개월간 월 50만 원(150만 원 한도)의 육아수당 지급

③ 사회보험 안전망 : 실업급여 지원 확대 및 산재보험 신설

- (고용보험)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최대 80%, 5년) 지원 확대

* ('26.) 4.2만명 → ('27.(정부안)) 5.5만명

- (산재보험) 소상공인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산재 발생 시 요양·휴직 급여 지원 신설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 시 생계 안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임의가입 방식의 산재보험 제도 운영